

정부·한전 의지부족... 멀어지는 한전공대 정상 개교

학교건물 기한내 준공 어려워... 2022년 개교 힘들 듯 지역정치권·민주당 특별법 제정 정상 개교 힘 쏟아야

2022년 한전공대 개교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 한국전력 내 여전한 부정적인 분위기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교사(校舍) 확보 특례 규정 등을 담은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2년 정상 개교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이 지역민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및 행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지역정치권과 집권 여당, 한국전력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0일 한국전력과 전남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캠퍼스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를 진행 중이다. 공사를 3 단계로 나누어 대학 개교에 필수적인 공간인 1단계 준공을 위한 설계 용역이다. 41억원 규모의 설계용역은 (주)DA그룹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맡았으며, 용역 기간은 지난 7월 20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다. 이 기간 용역업체는 캠퍼스 종합 계획과 1단계 준공 대상인 대학본부·강의동·관리시설·식당 등 3만1000㎡에 대해 설계를 한다. 한전 측 계획대로라면

설계와 시공사 계약, 공사 완료까지 최소 23개월, 가장 4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1단계 준공 시점은 빠르면 2022년 6월, 길게 잡으면 2024년 5월로, 어떤 경우든 2022년 3월 대학 개교보다 늦게 된다.

문제는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대학 설립 주체가 개교 12개월 전까지 교사 준공 후 설립 인가를 신청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설계와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2021년 2월까지 대학 설립 인가 취득에 필요한 교사 면적(최소 2만㎡)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전 내부에서는 교사를 임대하는 방안도 한때 대안으로 논의됐으나, 교사 및 교지는 설립 주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 대안이 되지 못했다. 한전은 이에 따라 오는 9월 3일(잠정) 이사회를 열어 1단계 공사 중 일부인 2900~5000㎡의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기술연구원(면적 1만 7100㎡)을 임대교사로 인정받고 부족한 2900㎡ 이상을 조기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4개월 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



한전공대가 들어설 나주시 빛가람동 부영골프장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에서는 "한전이 여전히 대학 설립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며 "공기 단축을 위해 한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과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미래 에너지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연 대학이라는 비전에 걸맞은 캠퍼스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기한 내 교사(校舍) 준공이 어렵다는 것은 2019년 7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 계획'에 언급된 사실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법 체계에서 정상 개교가 어려워지면서 지역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사 마련을 둘러싼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여

론이 높다. 교사 확보 특례 규정 등을 담은 이른바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상 개교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정훈 의원은 "2022년 한전공대 정상 개교 여부는 최소한의 기준 달성과 특별법을 통한 근거 마련에 달려 있다. 한전공대 정상 개교와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무엇보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가 정책으로 정치권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지하 공동구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IoT·AI 신 데이터 댐 구축 선정 32억 들여 상무지구 4.8km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부 디지털 뉴딜 첫 사업인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반 신 데이터 댐 구축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 전략 산업인 광선서를 이용해 전력선, 통신선 이상 진단과 발열 감지 체계를 갖추고 지하 공간의 다양한 재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국비 3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올해 안에 4.8km 길이 상무 지하 공동구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2년간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지하 공동구는 전력, 통신, 수도 등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이다.

지역 중소기업 4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4차 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지하 공동구에는 화재, 작업자 출입, 안전 장구 유무 등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지능형 CCTV와 융복합 센서를 설치한다.

정민곤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정부 디지털 뉴딜사업 선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 참여와 국비 확보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공간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추진

지도 기반 행정서비스 강화

전남도는 내년 1월까지 지도기반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5억원을 투입해 부동산 관련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하나로 모아 사용자 중심의 공간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각각 운영 중인 항공영상 공간정보, 공간정보 참여마당, 섬 관리, 투자유치 지원 등 6종의 공간정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위치기반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한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공간정보 참여마당 누리집 개편을 통해 토지정보 실시간 연계하고 추가 콘텐츠를 발굴·개발하는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도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빠른 정책결정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촬영 영상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드론촬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축적된 항공영상을 통해 도시의 변화 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계열 영상서비스도 구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면 운영 환경 보안성 강화를 비롯 사용자 중심 행정서비스 지원, 유지관리 비용 대폭 절감 등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통합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부서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가적인 공간정보 콘텐츠 개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지난해 채무 8946억... 전년보다 493억 줄어

채무 비율 광역시 중 두 번째 낮아

지난해 말 기준 광주시 채무 비율이 광역시 가운데 대전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결산 기준 광주시 채무잔액은 8946억원으로 전년보다 493억원 줄었다. 채무 비율은 4.07%P 낮아진 16.62%였다.

대전이 10.7%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 16.64%, 대구 18.17%, 울산 20.36%, 부산 20.38% 등이었다.

세입은 전년보다 19.77%(1조1086억원) 늘어난 6조7163억원, 세출은 21.77%(1조674억원) 증가한 5조9699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출에서는 사회복지비가 37.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반 공공 행정,

수송·교통 분야 등이 증가했다. 광주시는 31일 홈페이지에 2020년 지방재정 현황을 공시한다. 지방재정 공시는 예산과 결산 기준으로 1년에 2번 이뤄진다.

8월 말까지 지자체별 재정공시 이후 행안부에서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명승 됐다

문화재청, 국토 최서남단 '끝섬' 지리적 상징성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가 명승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전남 신안군에 있는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를 명승 제117호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명승 지정은 국토의 마지막 '끝섬'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최서남단 가거도는 동쪽 끝의 독도(천연기념물 제336호), 서해 최북단 백령도(명승 8호, 천연기념물 제391호), 최남단

마라도(천연기념물 제423호)와 함께 우리 국토를 감싸는 '끝섬' 중 하나다.

섬 전체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가거도는 최서남단이라는 지리적 상징성이 있고 뛰어난 식생 분포를 갖고 있다.

섬 중앙에 해발 639m 독실산이 바다를 향해 있으며 기암괴석과 후박나무 군락 등 다양한 종류의 휘귀식물이 자생한다.

특히 가거도 북서쪽에 자리한 섬등반도는 섬 동쪽으로 뻗어 내린 반도형 지형으



문화재청이 전남 신안군에 있는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를 명승 제117호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로 유명하다. 기암절벽으로 이뤄진 암봉과 병풍처럼 펼쳐진 해안 낭떠러지, 낙조

경관은 절경으로 손꼽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수산단 진입로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선정 20억 투입 환경 조형물 등 건립

여수 삼동지구의 여수국가산단 진입로가 디자인 특화 거리로 조성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여수국가산단이 최종 선정됐다.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노후화로 삭막한 산업단지에 특화 디자인을 입히고 공원과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해 근로자 편의와 산업단지 이미지를 밝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년간 국비 10억원을 포함해 모두 20억원이 투입해 산단진입로 400m를 디자인 특화거리로 조성하

고 환경 조형물과 화화 산단을 상징하는 가로구조물, 쉼터,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여수 국가산단 진입로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되면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은 여수국가산단 야경투어와 더불어 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며 "실시설계를 신속히 완료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국가산단은 지난 5월, 정부 산단 대개조 사업의 거점 산단이자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4년까지 노후 기반 정비사업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계획돼 있어 산단 입주환경 개선과 근로자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남원시의 빠른 수해극복을 응원합니다
#힘내라남원 #함께해남원 #이겨내자남원

추앙 사랑을 90배하러

제90회 춘향제

2020. 9. 10 THU ▶ 9. 13 SUN

제90회 춘향제는 온라인 라이브로 중계됩니다.

YouTube 남원와락

제90회 춘향제는 무관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남원와락 채널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춘향제향 · 춘향선발대회 · 춘향국악대전 · 뮤지컬 '춘향은 살아있다'

남원와락 유튜브 구독방법



인터넷, 어플을 통한 유튜브 접속

YouTube 남원와락

검색창에서 남원와락 검색

구독을 누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실시간 축제 즐기기

축제일정 모든 프로그램은 무관객으로 진행됩니다.

- 9.10 목** 춘향제향 10:00 | 춘향의 얼을 기리고 국민의 안전을 기원해온 전통 제례 전국춘향선발대회 16:30 | 한국의 전통미와 지, 덕, 체를 갖춘 춘향선발
- 9.11 금** 대표브랜드공연 뮤지컬 '춘향은 살아있다' 20:00 | **춘향 타니아** **몽룡 손호영** **변희도** **윤세웅** |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춘향전
- 9.12 토 ~ 13 일** 춘향국악대전 10:00 | 국내 최대 규모의 국악경연대회

주최 남원시
주관 춘향제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